

국정과제회의

지방과 수도권 새로운 비전을 만들어 상생하는 관계로 가야

행정수도 이전하면 통일 이후에는 어떡하나 걱정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한번에 정부가 통합되는 독일식 통일은 잘 되지 않을 것이고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많은 생각 있는 사람들의 견해입니다. 이런 경우, 각자 구심점을 갖고 개성쯤에 접점을 만들어가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지방은 스스로 발전전략을 내지 못한 채 수도권 억제 얘기만 하고 수도권은 지방의 발전은 도외시한 채 억제에 대한 불평만 얘기하며 곳곳에서 서로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지방과 수도권 나름대로 새로운 비전을 만들어 상생하는 관계로 가야 한다.

행정수도 이전을 다음 총선에서 이용하지 않을까 걱정하는데 야당이 당론으로 채택해 버리면 정부의 정치적 독점권이 해소돼 버린다. 제 의지는 확고하다. 국회에서 도와주시면 열심히 하겠다.